

‘빙하기’란 말이 나올 만큼 각 클럽과 지구의 회원 감소 문제가 공동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 지구에서는 이번 회기에 ‘패밀리 투게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가족 연합’ 방식의 회원증강 전략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상반기 성과를 중심으로 그 가능성과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총재월신 편집위원회>

패밀리 투게더, 신 로타리 시대로 가는 변화

‘로타리, 변화를 만들자’라는 RI 테마와 같이 회원 유치와 관리에도 새로운 인식과 변화가 필요하다. 회원수 감소는 몇몇 클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19개 지구는 물론 전 세계 539개 지구가 다함께 고민하고 있는 공통의 당면과제다.

우리 지구에서는 ‘Family Together’라는 새로운 회원영입 어젠더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넓게 형성돼가는 동시에 이미 몇몇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관심이 높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 클럽 운영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각 클럽의 여건에 맞게 어떤 방식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혈연 또는 로타리 정신을 공유할 동반자가 모두 가족

올해는 우리나라 로타리클럽이 90주년을 맞은 해다. 3세대가 지난 셈이다. 조부모, 부모 세대에 이어 현재 3세대 회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근래에는 부자 회원-모녀 회원 등 4세대 로타리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Family Together’에서 가족의 개념은 단순한 혈연적 가족관계 이상을 포함한다. 가족과 같이 친근한 선후배나 친구, 학교나 직장, 군-동호회 동료 등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부부나 자녀 세대까지 아우르는 기본 개념을 뛰어넘어 로타리 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동료 선후배들까지를 가족의 개념에 포함하는 것이다.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로 회원 영입의 한계점에 봉착해 있다면 로타리안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가족에게 이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이다. 아울러 조기 퇴직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한때 클럽에서 활동하다가 탈퇴한 회원이나 휴면회원을 다시 영입하는 방법, 공동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입회시키는 방법도 대안으로 떠오른다.

새서울RC 김유광 전회장의 가족회원 입회식



서울예지RC 신입회원의 배지를 달아주는 이순동 총재



부부가 함께하는 로타리, 부인회 중심 위성클럽으로

회원 배가운동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근래의 사례를 보면 그 중심에 여성회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지금 배우자에게 로타리 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장수시대에 걸맞는 선택이다.

지난 10월 24일 창립한 서울무악로타리 울타리위성클럽(회장 성태영)이 그 첫 번째 사례다. 22년 역사를 지닌 서울무악로타리클럽(회장 강석진)의 회원 배우자들이 부인회 기반을 바탕으로 위성클럽을 만들었다.

주회 출석이나 연회비 등의 부담을 줄이고 좀더 유연한 형태의 로타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봉사나 지구 프로그램 등에는 모클럽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존 부인회가 결성되어 있는 클럽이라면 이같은 사례를 참조해 위성클럽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로타랙트, 장학생 출신 주축으로 위성클럽 창립

로타랙트클럽은 신세대와 로타리클럽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다.

로타랙트 회원(18~30세)들이 곧바로 로타리 회원이 되기



한양 연세 위성 클럽 창립식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모클럽이 후원하는 위성클럽으로 조직해 청년세대를 로타리와 맺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29개 로타렉트클럽이 조직돼 있고, 1969년 부산대에서 첫 로타렉트가 탄생한 이래 반세기 동안 많은 회원들이 배출되고 있었으나 사실상 유대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로타렉트 출신 청년들을 위성클럽으로 재결집하여 차세대 로타리안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블루오션이라고 하겠다. 또 사회에 진출해 있는 로타리 장학생들도 적지 않다. 지난 11월 우리 지구에서는 한국요네야마학우회(회장 전병태) 총회에 참석해 소속 회원들이 향후 위성클럽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권장한 바 있다.

우리 지구에서는 지난 11월 12일 한양로타리클럽(회장 최경순)이 후원한 한양-연세로타리 위성클럽(회장 김동찬)이 연세로타렉트 출신 회원 20여 명으로 창립됐다. 한양로타리 창립 62주년 기념주회에 연세 회원들을 초대해 클럽 역사와 봉사활동을 소개한 것이 계기가 되어 위성클럽으로 발전하게 됐다. 2016년 RI 규정심의회에서 로타렉트 회원도 로타리안이 될 수 있게 규정이 바뀜으로써(이중회적 가능) 청년들이 위성클럽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번에 창립한 한양-연세 위성클럽은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로타리 사상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서울삼청RC 가족회원 입회식



로타렉트 출신들로 구성된 서울남만로타리클럽

조손회원, 부부회원까지... 로타리 가문을 만들자

우리 지구는 한국 종주지구인 관계로 조부모에서 손주 세대까지 2~3대를 이어오는 로타리 가문이 있다. 여기에 부자, 모녀 회원 등 자녀회원은 물론 지난 9월 월례회의에서는 새서울로타리 김유광 전회장의 두 자녀와 사위가 동시 입회한 적도 있다.

서울삼청로타리클럽은 최인훈 회장과 이우식 직전회장의 영부인 이영옥 안중근의사기념관장과 김진옥 올라이트라이프(주) 대표이사가 동시에 입회해 이 클럽에는 조상호 전회장의 영부인 유승희 교수까지 세 쌍의 부부회원이 함께 활동하게 됐다.

서울아미로타리클럽의 제임스전-김인희 회원, 서울강북로타리-랑코리아 위성클럽의 주세페김-구미꼬김 회원 등도 한 클럽에 소속된 부부회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종전의 남성회원 중심의 '나홀로 로타리안'에서 '여성회원' 시대를 거쳐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로타리안'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배우자, 형제자매, 부자-모녀로 확대하며 로타리 정신과 문화를 공유하는 인생 동반자, 멤버십을 상속하는 로타리 가문으로 회원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40대 미만의 젊은층과 여성, 차세대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부수효과도 거두게 된다. 또한 자녀들이 잘 적응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지구 내 유관 로타리클럽에 소개하고, 연령층이 낮을 경우에는 위성클럽에서 로타리 경력을 쌓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위성클럽 창립 관련 참고사항

- 정회원 25명 이상 로타리클럽 스폰서로 최소 8명 이상이 결성 가능
- 기존 로타리클럽 회원과 동등한 자격
- 클럽 내 부인회, 30세 이상 자녀 주축의 위성클럽화 추진
- 스폰서 클럽과 별도의 모임 개최 권장
- 위성클럽 지구회비 적용(연간 5만원)
- 스폰서 클럽의 봉사와 행사, 지구 행사 등에 참여